WFB 한국본부 회장에 추대된 진각종 회정 통리원장

“범불교 국제교류창구 역할 수행”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사진)가 10월 17일 서울 남산타워호텔에서 열린 ‘세계불교도우의회(W.F.B ; 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 한국본부 이사회에서 제 8대 회장 겸 총재 권한 대행에 만장일치 추대됐다. 지난 1966년 W.F.B 태국 방콕 세계대회에서 한국본부가 승인 받은 이후, 종단 행정수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때문에 40년이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름만 있고 활동이 없던’ W.F.B 한국본부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56년 4차 네팔 카투만두 세계대회에 옵서버로 처음 참가한 한국본부는 현재 불교계 내외 지도층 인사 36명이 임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장에 취임한 회정 정사를 만나 향후 W.F.B 한국본부의 위상 제고 방안과 국제 불교 활동에 대한 전망을 들었다.

▲W.F.B 한국본부의 위상에 대한 지적이 많은 가운데 회장을 맡으셨는데….

–역사에 비해 그동안 활동이 미미했다. 연례행사로 세계대회에만 참석할 뿐, 한국본부의 면모를 세우지 못했다. 이웃 종교 원불교의 국제 활동을 보라. 놀랄 정도로 왕성하다. 그런데 우리 한국불교는 어떠한가? 우물 안에만 있다. 변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제는 한국불교가 국내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 세계인류를 구제하는 종교로 탈바꿈해야 한다. 먼저 진각종이 그간 해온 국제불교 업무는 W.F.B를 경유하게 될 것이다. 향후에는 W.F.B를 범불교, 범종단 차원의 국제불교 창구로 그 위상을 높일 것이다. 이를 위해 WFB 한국본부란 이름

에 걸맞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겠다. 특히 추진력을 갖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토대를 마련하겠다.

▲구체적인 조직 정비 방안은?

–W.F.B 한국본부 신임 집행부에 진각종 국제불교연구소 인력을 투입하는 등 종단 차원의 다양한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 먼저 연구소 상임연구원을 W.F.B 사무총장에 임명하는 한편, WFB 이사진에 소속된 종단 집행부 부 · 국장단의 왕성한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세계 불교지도자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07년 10월경 ‘W.F.B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 W.F.B 한국본부가 대만 까오슝에서 열린 ‘W.F.B 국제대회’에서 포럼 유치를 추인받은 이 행사에서는 국내외 불교지도자 150여명을 초청되는 등 대단위 규모로 진행할 것이다.

김철우 기자

미륵종 예비승려 28명 배출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10월 18일 제8기 행자교육을 마치고 예비승려 28명을 배출했다(사진). 미륵종은 지난 11일 경남 김해시 총본산 관음정사에 행자교육원을 개원, 남행자 20명 여행자 8명 등이 입산해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예식의궤 등의 교육을 7일간 이수했다.

이번에 입산한 예비승려들은 전국 각말사에서 공부 하던 행자들로 교육이수 후 승가고시에 전원합격해 사미(사미니)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스님은 “수준높은 스님들을 많이 배출하여 종단의 초석으로 삼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태에 맞추어 불법을 전파하고 종단의 개혁과 자정의 밑거름이 된다” 고했다.

영민 서부 경남 지사장

천태종 해운사 대웅보전 낙성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천태종 해운사(주지 진달스님)가 연건평 322평에 전통양식 2층 규모의 대웅보전을 신축해 10월 17일 낙성식을 봉행했다(사진).

도용 종정 스님 등 2천여 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에서 정산 총무원장은 “한반도 최남단 도시 서귀포에 대조사님의 정법이 뿌리내려 새롭게 융성하는 것을 보니 불법인연이 도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낙성된 해운사는 지난 73년 상월대조사의 제주 대법회 후 2년 뒤인 75년에 서귀포 지회로 발족됐으며, 10년 후인 86년에 제주지부 문강사에서 해운사로 분리 독립됐다. 93년 토평동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02년 기공 이후 4년 만인 이날 낙성을 가졌다.

김주일 기자

법화경 사경독송대법회 3만여명 운집 성황리 회향

대한불교조계종 평화통일불사리탑, 세계대각법화회, 법화정사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세계평화와 남북평화통일 발원 ‘법화경사경독송대법회’가 10월 15일 오전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법화경>을 사경(寫經)한 서예작품전, 법화경 독송식, 부처님 세안식(사진), 호국영령 추모제, 통일기원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전시되는 1천여장의 <법화경> 서예작품들은 국내 유명 서예가 1천명이 참여해 각각 1장씩 사경해 완성한 것. 또한 미얀마 불교계의 선지식인 예도 스님도 초청돼 부처님 세안식을 봉행했다

김주일 기자

국내 최초 ‘진지 법당’ 첫삽

평상시엔 신앙공간 전시 전투공간으로

강화 무애원 공사 착수

국내 최초로 진지법당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지법당이란 평상시에는 군장병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정신 전력을 강화하는 곳이지만 전시에는 법당 옥상에 마련된 진지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군법당을 말한다.

강화 무애원(주지 설봉)은 10월 19일 진지법당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진지법당은 장병들이 법회를 볼 수 있는 법당과 함께 다목적 수련관 등의 시설을 겸비하게 된다. 특히 진지법당 옥상에 전시 해병대 불자들이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진지가 지어져 있는 군의 현실에 부합하는 법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애원 주지 설봉 스님은 1980년 서울 신길동 판자촌에 처음으로 무애원

전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진지법당 건립이 시작됐다. 사진은 10월 19일 열린 기공식 모습.

을 설립했고 1995년 해병대 강화법당 호국 기룡사를 창건하는 등 30년 이상 어린이, 군포교에 매진해왔다.

설봉 스님은 “법당 위에서 총을 들고 적과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역사를 반추해 보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승려들이 경전 대신 창칼을 들고 나라를 지켰다”며 “향후 장병 수련장 및 훈련장 등을 만들어 진지법당이 호국불교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송담 스님 후원으로 군법당 창건

호국 금강사 낙성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인 인천 용화사 송담 스님이 군법당 건립을 위해 거액을 희사해 화제다. 육군 20사단 62여단은 10월 13일 석남사 회주 정무, 여주사암연합회장 신고달사 주지 혜성, 양평사암연합회장 사나사 주지 화암, 이천사암연합회장 용학사 주지 혜봉 스님과 3군 사령부 이종인 법사, 20사단 박춘근 법사를 비롯해 부대관계자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 금강사 낙성식을 봉행했다.

송담 스님은 총 공사비 1억 5천만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보시해 군 포교와 청년 포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실천행으로 보여주었다.

62여단 호국 금강사는 10월 13일 낙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군포교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주요 내빈들이 낙성식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62여단 불자 장병들은 그동안 법당이 없어 차량으로 30분 거리의 20사단 호국 득도사로 이동해 법회를 보아왔다.

수송 수단의 제한 및 동절기 강설 등으로 법회 참석이 쉽지 않아 그동안 종교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에 건립된 호국 금강사는 8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로 62여단 본부와 2개 대대 장병들의 신앙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대한불교 선총림 오봉산 대원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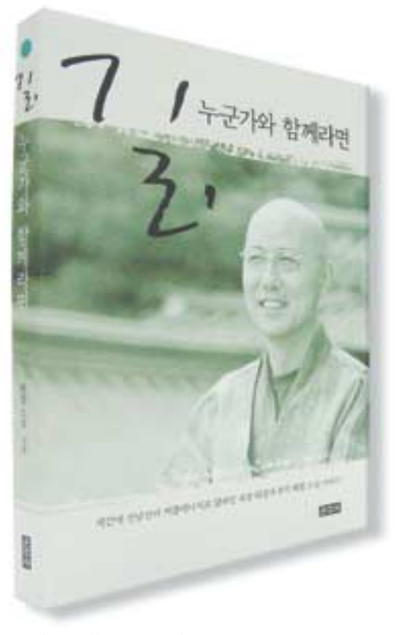
71, 누군가와 함께라면

선남선녀의 따뜻한 인연을 이어주는
혜철스님의 가을같은 맑은 이야기!

‘대성사 따뜻한 만남’ 이라는 새로운 법회를 통해 처녀총각 인연 맺어주기를 실천하는 혜철스님이 그 동안의 법문과 기고문, 그리고 시와 단상 등을 모아 엮었다.
세간의 일상을 담담히 담아내는 따뜻한 시선, 환경오염에 대한 애절한 안타까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 등 대립과 투쟁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대한 절실한 사랑이 묻어난다.

인생은 나와 인연과 연緣을 맺은 수많은 사람,
수많은 환경과의 공존의 길이다.
독자 한사람 한사람이 이 책의 주인공이며, 함께해서
행복한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대성사 주지 혜철 합장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구입안내 : 온라인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국판/278쪽/12,000원
운주사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02)926-8361